

CEO 동정

### '11년도 하반기 퇴임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2월 30일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1년도 하반기 퇴임식에 참석, 남기명 전 고속철도사업단장을 비롯해 정재우 전 영남본부장 등 6명의 퇴직자들에게 기념패와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 수도권본부 관내 자산 활용 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2월 23일 상록수역 교각하부 시민쉼터 조성지 및 경부고속철도 개착부 사용허가지 현장을 방문, 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우송대학교 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2월 20일 우송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후회없는 대학시절 보내야'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고, "젊은 열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 추진 - 공단, 2011년 창의혁신 성과공유대회 개최



공단은 지난 12월 29일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창의혁신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퇴메움 높이 최적화 등으로 52억원 절감한 성과와 실효성 없는 터널내 소화수조 폐지로 246억원을 절감한 2개의 최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창의혁신 우수자 5명, 예산절감 기여 직원 30명, 공생발전 3개 유공부서, 유공직원 17명 등 총 47명이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공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연 2회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여 창의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금,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전반에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혁신본부 양현호 기자>

### 공단·공사가 『철도정책조정협의회』 시행 - 유지보수비 과다 지급분 환수 등 3개 안건 합의 -

#### 2011년 하반기 철도정책조정협의회



오병수 공단 부이사장과 팽정광 공사 부사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은 지난 12월 26일 공단 본사 21층 상황실에서 철도건설공사 과정의 이견사항에 대한 '11년도 하반기 철도 정책조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공단 안건인 '유지보수비 과다 지급분 환수', '수인선·경인선 직결계획 재검토'와 공사 안건인 '변경된 제도 및 신제품을 설계 또는 시공에 반영 요청'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공단과 공사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운 '철도종합시험운행 비용 부담 개선' 등 3건에 대하여는 '12. 1월중에 국토부 철도 정책현안 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지급체계 개선 등 4건에 대해서는 공단과 공사간 재협의하기로 했으며, 국토부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 1건 등 11개 안건에 대하여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철도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건설본부 김홍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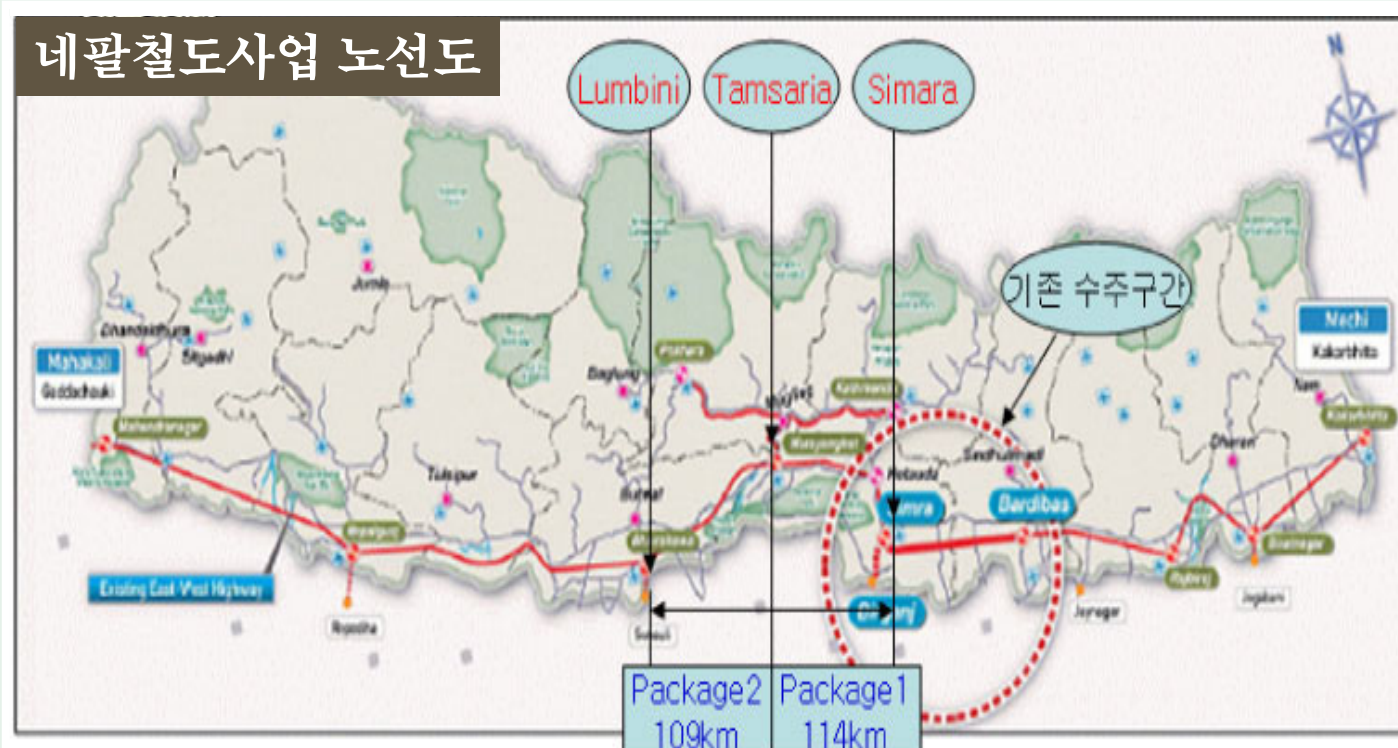
### 공단, 네팔 철도사업 2건 계약 체결 - '12년 1월부터 12개월간 사업 수행 -

공단은 지난 12월 29일 네팔 현지에서 네팔 시마라~바디바스(Simara~Bardibas) 등 2개 구간 136km의 전철건설 실시설계용역과 카트만두시 도시철도(MRT) 65.9km의 타당성조사용역 등 2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540만불(한화 약 62억원)을 수주하였다.

공단이 구성한 한국건설사들은 네팔 공공사업부가 시행한 국제경쟁입찰에서 프랑스, 인도 업체들을 제치고 지난 10월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네팔정부와 2달여간의 협상을 거쳤으며, 이번 계약 체결로 '12년 1월부터 12개월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네팔은 '12년에도 2개 구간 총 223km의 전철건설 실시설계용역 등 추가 발주가 있을 예정이다.

오재욱 해외철도사업처장은 "한국철도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내년 발주 사업도 수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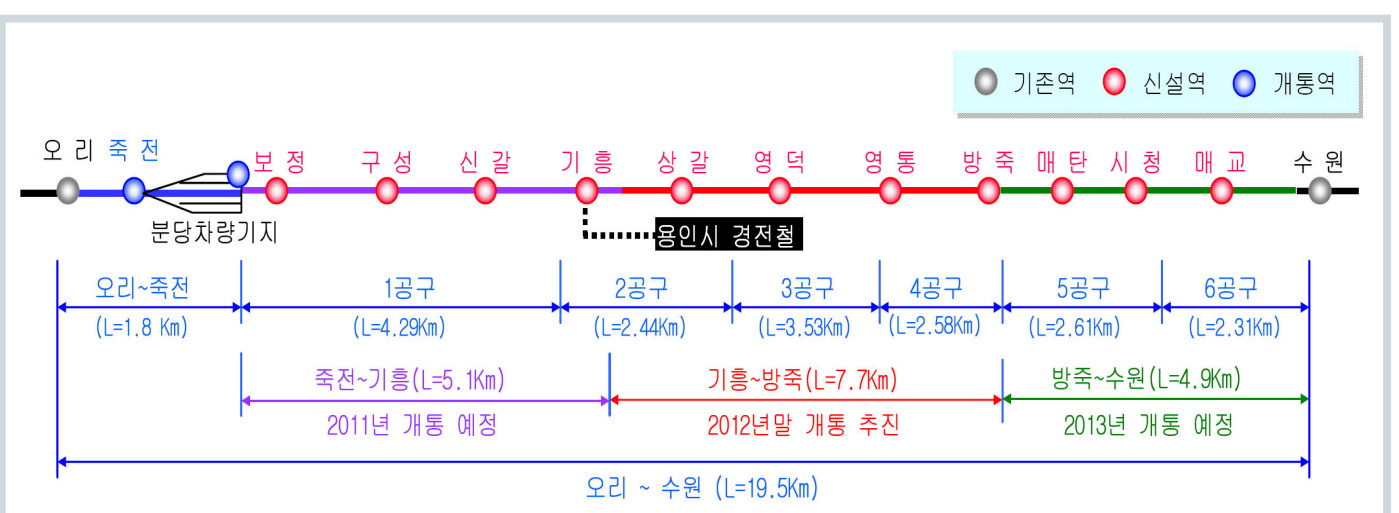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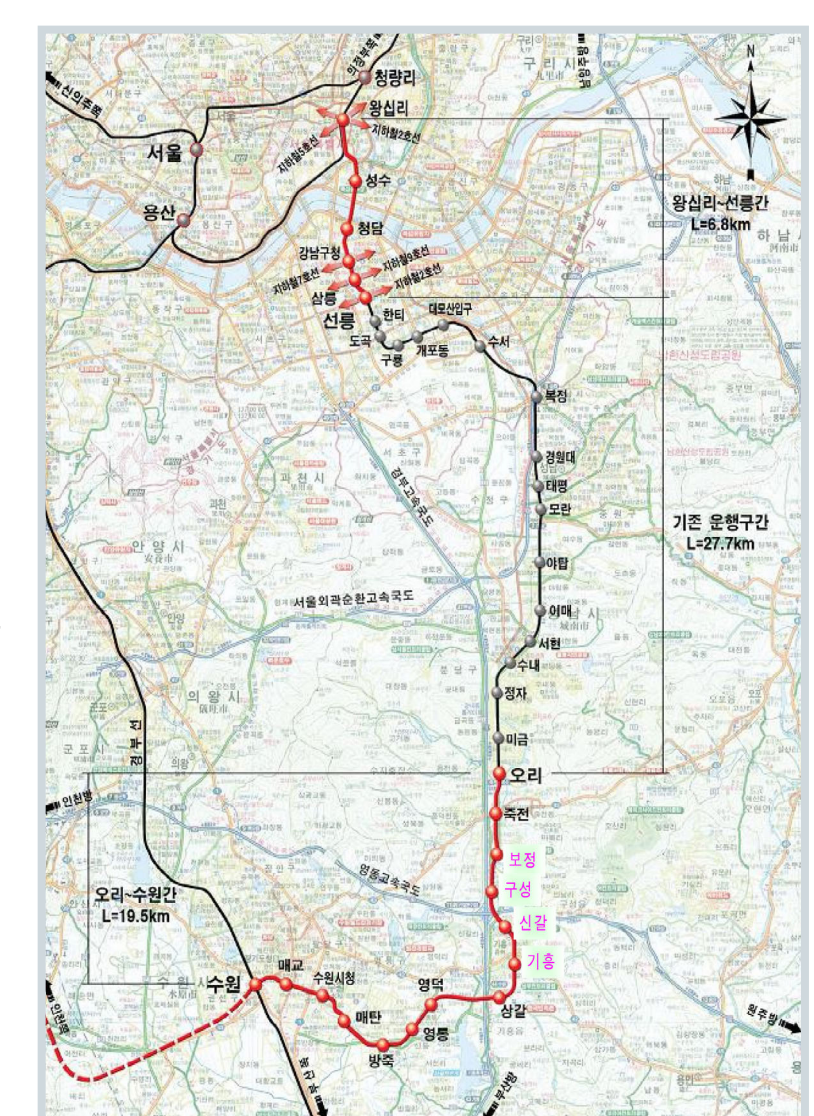


### 오리~수원 복선전철 『죽전~기흥구간』 개통 - '13년말 오리~수원 완전 개통 예정 -

공단은 지난 12월 28일 분당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죽전~기흥 5.1km 구간을 우선 개통하였다.

죽전~기흥구간 개통으로 현재 운행중인 분당선 선릉에서 죽전구간에 출퇴근 시간에는 6~8분, 평시는 14분 간격으로 연결되어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의 서울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희광 수도권본부 남부건설처장은 "오리~수원 복선전철 19.5km 중 오리~죽전간은 2007년에 개통하였고, 금년에 죽전~기흥간이 개통된데 이어 앞으로 기흥~방죽구간은 2012년 말에, 방죽~수원구간은 2013년 말에 각각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단, 연말 불우이웃돕기 5천만원 기부

#### - 임직원 참여기금으로 연 2억원 나눔활동 전개 -

공단은 연말 철로변 불우이웃, 장애인 등을 위한 연탄과 김장나눔, 독거노인 난방시설 교체 등 5천만원 상당의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임직원의 천원미만 자투리 급여와 나눔펀드(1구좌 2천원) 등으로 조성된 자체 사회공헌기금으로 ▲철로변 소외이웃을 위한 연탄나눔(2천5백만원) 및 김장나눔(1천만원) 활동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성금 기탁(5백만원) ▲독거노인가정 난방시설 교체(3백만원) ▲취약계층 아동과 불우청소년 체육행사 및 교복지급(3백만원) ▲아동 및 장애인시설 후원 물품 전달(2백만원) ▲이주외국인 노동자 송년의 밤 후원(1백만원) ▲지자체 모금운동 동참(1백만원) 등을 통해 세밀한 파 속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경기 불황으로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지원의 손길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온정의 불씨를 불우한 이웃에게 전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금년 한해 조성된 2억원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전국의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및 철도문화체험행사, 철로변 소외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 NGO 등 환경단체와 함께 하는 열악한 어린이들이터 가구기 등 공단이 보유한 철도 인프라와 업무역량을 활용해 수혜 계층별 맞춤형 나눔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